

탄소소재 · 의료기기 융복합산업 육성 가시권

도, 탄소소재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 목표... 탄소소재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구축 · 장비 인프라 25종 갖춰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전북에서 탄소 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서로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과 연계한 탄소소재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올해까지 구축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 나선다.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으로 구축하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척추, 골반, 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삽입을 위한 의료기기 수술용 의료기기에 탄소소재 등 탄소 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

하다.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053.08㎡) 규모로 지난해 건축 준공했으며, 급형용 프리폼 로봇시스템 등 25종의 장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2023년에는 임플란트 MRI 평가 시스템 등 10종의 장비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탄소소재 의료기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재가 가지는 장점으로 인해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소재를 의료기기에 접목할 경우 이어 겨울철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 겨울 강수량이 적은 지역을 추가적

인체는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유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메탈소재 의료기기에 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메탈소재 정형외과 의료기기는 뼈에 비해 무게와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장기간 적용시 뼈 조직의 약화 및 유실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탄소소재의 경우는 가볍고 인체 뼈와 유사한 물성치를 갖도록 제조가 가능해 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산업계 연구결과이다. 또한 X-RAY 등 영상장비 촬영 시 메탈소재 의료기기 주변이 뿌옇게 촬영되는 간섭현상이 발생하나, 탄소소재의 경우 영상장비에 걸림되지 않아

근육과 뼈조직을 선명히 볼 수 있어 진단 및 치료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탄소소재 의료기기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의료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으로 구축 중인 탄소소재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택립 도 미래산업국장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특화 기술개발(R&D)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도가 탄소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일 오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동참합니다”

심덕섭 고창군수, 자매우호도시 · 도내 시군 등에 전달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9일 오후 자매도시 및 전북 시·군간 기부 참여 활성화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고창군과 자매·우호도시 7곳, 전북도내 13개 시·군에 각각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창군 자매·우호도시는 서울 관악구, 성북구, 송파구, 마포구, 경북 상주시, 고령군, 부산 동래구 등 7곳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득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시스템, 오프라인 전국 모든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고창군은 답례품으로 농수축산물(팥공 등) 12개, 가공품(종전장어 등) 11개, 관광상품권 8개(상하농원 숙박권 등) 등 모두 32개의 다채로운 답례품을 준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매·우호도시는 물론 전북13개 시·군 주민들의 동참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고창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 영농기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 나선다

87억원 투입... 관정 개발 · 저수지 준설 등 용수원 확대 개발

하천 담수 · 저수지 양수저류 · 농경지 퇴수재이용 등 용수 확보

4월 이후 시작되는 영농기 및 첫수답·전, 들녘 말단부 등 가뭄우려지역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추진된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2,188개소로 총 저수량은 3억8,200만톤, 평균 저수율은 54%로 평년대비 저수율은 78%이나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심진강댐 저수율이 18%로 낮아 겨울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 영농기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가뭄이 우려되는 지

역에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보충수원 개발 등 전방위적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시행으로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해 영농철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영농기 이전에 2023년 가뭄대책사업비 87억원(특교세 27, 도비 5, 시군비 55)을 투입해 관정 661공, 뚝방 15개소 및 저수지 준설 18개소 등 공급시설을 확충한다. 이어 겨울철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적

으로 조사해 농업용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심진강댐 저수율이 낮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김제, 정읍, 부안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영농기 전에 주요 하천에서 관리 수위까지 담수하고 양수저류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75~80%까지 끌어올려 용수를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기에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보충수원으로 김제는 금강의 하천수, 부안은 저수 상황이 양호한 부안댐, 저류지 등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주요 보충수원이 없는 정읍은 하천수,

농경 퇴수 등을 재이용하는 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했다. 신원식 도 농수산식품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니 농민분들도 물고 관리, 논 물가 두기 등 농업용수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는 65억여원을 투입해 가뭄 피해 우려지역에 관정 개발 504공, 양수장 설치 2개소, 저수지 준설 21개소 등 항구적인 가뭄 대책사업과 하상굴착 161개소, 양수장비 대여 등 긴급 용수공급대책을 추진해 가뭄 피해를 예방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승인

농식품부, 국도비 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우선지원 사업 대상 선정

임실군이 고품질 브랜드 쌀과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군은 식량산업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스스로 쌀과 밭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와 RFO에 대해 국비 관련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로써 군은 이번 승인을 통해 식량산업 공공영역 육성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두류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RFC) 비 매입자금 등 식량산업분야 국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미곡종합처리장(RFC) 중심의 계약재배 공급체계

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밭작물 농가 조직화와 생산·유통체계구축, 고품질 쌀친환경(CAP) 생산 확대,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이다. 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된 계획의 이행과 식량산업 분야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식량작물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협의회는 심 민 군수를 위원장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실군조형농동사업관리(RFO),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이 함께 참여해 식량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식량사업 발전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도, 온라인 쇼핑몰 전북생생장터 대대적 개선 나서

회원고객 · 입점품목 · 입점업체 · 매출 확대 위한 다양한 판촉 · 해외진출 모색 등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공기관 위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북생생장터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변화를 준비했다. 전북도는 10일 전북생생장터 활성화가 곧 입점업체와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회원고객 확대, 입점품목 확대, 입점업체 확대에 오는 2026년에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도는 매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유통하는 산지

유통센터와 도내 스마트팜 농가와와의 협업 마케팅,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협업 마케팅,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배달 쌀 사는 날’ 운영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해외 쇼룸을 전북 농식품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진지 벤치마킹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선 외주업체가 담당해온

상품 입점관리, 정산 등을 운영기관인 경진원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외주업체는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웹디자인 제작, 고객관리(CS), 서버관리만 대행한다. 외주업체 계약에 있어 일명 ‘조끼계약’으로 지적된 계약기간 문제도 (1~3월, 4~12월) 완전히 해소한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2024년부터는 회계연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와 일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외주 대행업체를 선정하던 방법도 지역제 한정쟁입찰을 도입해 도내 업체가 외주대행을 맡도록 변경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생생장터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전북생생장터에 입점한 업체와 농가에게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모집	우석대학교 ·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영
<p>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 면접</p>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겸임위원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연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등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p>*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와 전문강사</p> <p>◎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쉽(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p> <p>◎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p> <p>◎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p> <p>◎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p> <p>◎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p>		
<p>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